

# 1960년대 소설의 양상

---

## ✿ 1. '관념'을 통한 현실 진단의 양상

- ✿ - <광장> 은, 관념을 통해 4.19가 열어준 자유의 기회로 남/북 조망. → 전후소설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에 대한 구체적, 전체적 조망.
- 관념의 주관성, 자기 논리에 빠지는 한계. → 환상성의 등장. 한 개인의 관념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.

## 2. 구체적 형상을 통한 현실 이해

- 이호철 <소시민> : 피난지의 소시민적 삶을 통해 혼란스러운 삶, 부정적 가치가 득세하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줌.
-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감각의 직관을 살림.

# 1960년대 소설의 양상2

- ✿ 3. 내성적 기교주의: 김승옥, 이청준
- ✿ - <산문시대> 동인. 김승옥, 김현, 최하림, 강호무, 서정인, 김치수, 염무웅, 곽광수.
- ✿ - '개인'의 발견 통해 당대 현실 사회 발견과 탐색. 즉, '개인' '나만의 세계'는 세계의 구체적 인식의 매체일 뿐임.
  
- ✿ 1) 김승옥 :
  - ✿ - 새로운 감수성, 감각적 이미지의 서사화
  - ✿ - 도시화 과정에서의 자기 소외, 폭력적 근대의 불안에 대한 성찰
  - ✿ - <무진기행>의 회귀형 서사. 여로 모티프.
  
- ✿ 2) 이청준
  - ✿ - 폭력과 억압의 세계에 대한 저항.
  - ✿ - 중층적 세계와 가치를 구현하는 액자형 소설.
  - ✿ - <지배와 해방> <소문의 벽> <씩어지지 않는 자서전> <당신들의 천국>